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

-아브라함 카이퍼의 미학론을 중심으로-

안용준(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기독교미학 연구원)

논문초록

이 글이 지향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미학의 일반적 특징을 연구하고 이 연구를 기초로 현대 예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카이퍼 미학론의 청지기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혁주의 미학’이란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의 신학사상을 이어받은 신칼빈주의의 전통에 서 있는 학자들이 발전시킨 예술이론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개혁주의 미학은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학 체계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미학은 모든 예술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학이다.

그래서 카이퍼는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을 믿는다. 신적 완전의 객관적 실존을 갖는 창조 이후의 세계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그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 미학의 견해에 비추어 카이퍼는 현대 예술의 위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미학은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예술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종교의 영역이며 영원자와의 연관에 의하여 예술은 통일성과 신성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창조된 아름다움의 세계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 예술을 가능케 하는 독자적 역할이 일반은총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두 요인을 근거로, 셋째, 예술의 세계관적 대립이라는 현실에서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제어: 개혁주의 미학, 청지기, 기독교세계관, 일반은총, 하나님의 주권

1. 여는 말

현대 예술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자유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뚜렷한 현상들이 존재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자부하는 서울의 인사동 그리고 북미의 뉴욕, 토론토 화랑 거리를 방문해 보라. 길가에 늘어선 많은 수의 화랑들은 아쉽게도 예술지상주의와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명제 아래 인간의 허망한 욕망과 자유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더 큰 아쉬움은 현대의 범람하는 미학이론들이 보편적 진리 기준에 따른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문’이라는 자신의 정의²⁾를 예술작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느 미학이론도 현대의 예술작품에 대해 사랑어린 제약을 가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충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듯 미학이론이 예술작품에 대한 진리와 관련된 해석을 거부한 채 단지 예술 생산자와 수용자가 하나의 예술적 의미를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그 과정만 기술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예술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³⁾이 미학과 예술의 보편적 틀로서 제시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개혁주의 미학의 전통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미학론이 위 문제에 해답을 제공한

2)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62)은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문’의 의미를 갖는 『미학 *Aesthetica*』(1750)을 완성하였다. 그는 여기서 데카르트 진리 인식과 볼프학파의 하위의 인식 능력의 논리학이라는 개념을 이어받아 ‘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학이란 완전성을 감성적으로 인식하는 학문이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인식된 완전성이 미이다(Gilbert · Kuhn, 1972: 285-95).

3) ‘청지기 역할’은 누가복음에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세 개의 비유, 즉 누가복음 15장 42-48절(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16장 1-13절(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9장 11-27절(열므나의 비유)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청지기인 성도가 위탁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면, 즉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며 재물을 함께 나누면 칭찬이 있을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은 현대 예술세계가 타락한 현실에서 회복되며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청지기 역할은 예술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유의 중요한 선구자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미학론에서 개혁주의 미학 이해의 단초를 찾아내어 이 논의를 전개시킨다.

다고 믿는다. 그의 미학론은 우리의 예술 현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세계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미학적 원리를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예술의 조화로운 통일이 모호한 분위기에서 기독교 예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선 카이퍼 개혁신주의 미학의 주요 특징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살펴본 다음 이 연구를 기초로 예술의 역사에서 카이퍼의 미학이 차지하는 청지기 역할과 그 의미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 글은 개혁신주의 미학사 가운데서 카이퍼 미학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청지기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에서 쓰여 졌다. 왜냐하면 카이퍼 미학은 21세기의 현대 예술계에 ‘개혁신주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동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카이퍼의 개혁신주의 미학이 어떻게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필자는 개혁신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이 수행되어야 하는 예술 현장을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그 오류와 한계를 다룸으로서, 결국 예술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필자는 개혁신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일반은총을 거부하는 예술의 공허함을 실제 작품을 통하여 다룰 것이다. 해결책으로 일반은총의 원리가 개혁신주의 미학의 체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세계관적 대립이라는 예술 환경에서 개혁신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가 작품의 예술성과 개혁신주의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될 것이다. 끝으로 V장에서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술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혁신주의 미학의 가능성이 예술의 구조와 역사적 토대 위에서 주장될 것이다.

물론 이상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개혁신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대 예술의 주류적 분위기 안에서 당혹스러운 것이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예술적 태도의 경향은 예술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최대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책

임이 수반된다. 이것을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사상으로 표현하기로 하자. 개혁주의 역사 안에는 칼빈이후 미학의 청지기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더욱이 오늘날은 시각과 이미지의 시대이다. 미학의 청지기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필자는 현대의 절망으로 드리워진 어두운 예술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밝은 예술의 미래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II.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주권

미학에 관한 카이퍼의 개혁주의적인 시도는 당시 네덜란드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그는 “유물론과 합리론에 의하여 위축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시들어져가는 과정에 대한 해독제를 예술적 본능에서” 찾았다(Kuyper, 1961: 173). 예술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 통찰력의 장으로 평가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미학적 판단의 풍부한 원천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은 땅은 한 치도 없다!” 1880년 10월 20일 왕궁 옆의 암스테르담 프린시펄 스퀘어(principal square)에 있는 새 교회(New Church)에서 카이퍼는 자유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인상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 카이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주제가 역사적 연설을 들으러 모인 대중들 앞에서 가감 없이 전달되는 순간이었다(Kuyper, 1998: 461). 연설의 중요한 주제는 창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내에 있는 영역 주권이라는 두 개념⁴⁾이다. 카이퍼는 두 개념을 근간으로 삶의 체계 내의 인간의 위치에 개혁주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비전의 중심에 위치

4) 이 개념들은 카이퍼의 저서인 『기록한 신학의 백과사전』(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일반은총론』(Gemeene Gratie), 『왕을 위하여』(Pro Rege), 『예술에서의 칼빈주의』(Calvinisme en Kunst)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한다. 그는 삶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예술의 독립된 의의를 드러낸다.

우리의 지적·도덕적·종교적·미학적 생활에는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들 영역은 평행선을 달리듯 한 영역에서 다른 하나를 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사중의 구분으로서 외부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신비적 뿌리에 근거하는 정서, 충동, 생기이다. 예술은 즐기에서 자라난 결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나무 몸통에서 자라는 독립된 즐기이다(Kuyper, 1961: 182-183).

카이퍼는 인간의 생명력이 외부 세계로 표현되는 방식을 지적, 윤리적, 종교적(신앙적), 미학적 영역의 4가지로 나누면서 이러한 영역들의 통일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무한자의 샘에서 나오는 지점에서만 발견”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Kuyper, 1961: 183).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고상한 조화란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우리의 일반적 발달과 정비례하여 협력할 때에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Kuyper, 1961: 185). 카이퍼에 의하면 예술적 표현 역시 무한자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와 영감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가장 깊은 뿌리와 독립” 하여 존재한다면 “예술의 타락과 예술에 대한 평가절하” 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Kuyper, 1961: 184). 그는 이러한 점을 역사적 사실로 정리한다.

18세기의 합리주의나 1789년의 윌리 하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심미적 가치를 담아 내는) 예술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19세기의 예술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새로운 예술 양식을 창출하려는 19세기의 노력은 결국 완전히 실패로 끝났으며, 그 당시의 작품은 오로지 과거의 불가사의한 업적에 영감을 받을 때에만 참된 매력을 소유할 수 있다(Kuyper, 1961: 182-184).

그에 의하면 “로마의 예술과 르네상스의 예술에서와 보느바와 같이 이 예술들이 주도적인 종교적 추진력이 없어도 예술 양식에서 전면적인 계시에 도달했다고 어느 정도 확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Kuyper, 1961: 182). 오늘날의 예술도 예외는 아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의 작품 <세 명의 무용수>를 살펴보자. 무용자체가 태초의 디오니소스적인 활동, 즉 오락이 아닌 광적이고 격렬한 행위로서 나타나고 있다. 피카소는 1920년대 중

반 그동안 영위해온 사교생활에 염증과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낄 무렵 이 작품을 완성했다. 그가 여기서 보여주는 극단적인 무용수의 왜곡과 움직임은 입체주의에서 유래한 전위와 반복, 해체 등에 의해 더욱 극단화되고 있다(Lynton, 1980: 203). 원시적인 조형 원리와 강박적인 사고와의 모호한 상관관계를 통하여 인간 생명의 경외감을 이끌어 내는 그의 의도는 분명하게 성공해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술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종교의 영역이다(Hart, 2000: 15). “영원자와의 이런 연관에 의하여 예술은 자신의 내면적 통일성과 이상적 신성화를 얻을 수 있음을 카이퍼는 강조했다(Kuyper, 1961: 177). 그래서 “그림에서 선과 빛깔로 생동감을 얻는 삶을 재생” 하듯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우리 자신의 환상의 산물이나 우리의 주관적 산물이 아니라 신적 완전의 표현으로서 객관적 실존을 갖는다” 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른다(Kuyper, 1961: 190). 이러한 미론의 배경에는 창조에 관한 다음의 원칙이 있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여기셨다. 모든 인간의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히더라도 아름다움은 여전히 남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들으시는데, 이는 ‘그의 영원한 능력’ 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 이 창조로부터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연물에서 파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라(Kuyper, 1961: 190).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느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영감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예술 활동에서 필연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에 의해 유지된 종교와 예술의 기본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더 지고한 개념을 발견하지 못했다. 더 높은 개념이 없기에 발견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개혁주의 미학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추가하였다. 곧 하나님의 창조성을 탐구하고 고양시킴에 따라 대중은 자연스럽게 문화의 향수 범위를 확대하여 삶의 기회를 증진시켰다(Kuyper, 1998: 462).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이 삶 그 자체에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개혁주의 미학 역시 하나님이 설정하신 영원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높은 이상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III. 일반은총의 원리와 예술

앞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질서 체계로의 창조의 이론은 카이퍼의 개혁주의 미학 형성에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창조에 대한 카이퍼의 이해는 그의 두 번째 주제인 ‘일반은총’의 개념으로 인도한다. 그는 일반은총의 설명을 통하여 광범위한 문화적 영역에 걸쳐 미학적 이념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주요 목적은 창조의 보존이다.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법칙이 일반은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은총이야말로 인간 문화의 근본이 된다. 일반은총은 영적이거나 재 창조적이 아닌 물질적이고 시간적이다(Kuyper, 1907: II, 28, 630-31; I, 86, 92, 296; III, 107-10, 331; Van Til, 1972: 118 재인용).

이렇듯 카이퍼는 피조세계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가능케 하는 독자적 역할이 일반은총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실 어떠한 문화 예술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그가 죄의 파괴적인 심각성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 안에 나타나는 예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구체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반은총은 창조 세계 안에서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 예술의 형성자로서 능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카이퍼는 한편으로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슬픈 결과로서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류의 역사에서 증거 되듯이, 예술은 단순한 물질적 삶의 필요를 넘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Kuyper, 1961: 188-196). 비록 일반은총이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으며 이 세상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원은 세상의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이다. 즉 일반은총은 창조의 증보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

나님의 영원한 명령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Van Til, 1972: 118).

그러므로 일반은총의 발로인 예술의 특수한 경험들은 피조물과 자연의 영역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다. 예술의 새로운 형식적 가능성을 창조하는 가운데 미학적 욕망을 자극하는 원천을 일반은총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일반은총의 작용으로 능동적이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창조 세계 속에서 풍경을 평온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정경으로 변형시키고, 소박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심만이 아니라 일반은총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예술적 태도는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표현해 내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거부하는 예술에 대한 역사적 과정의 공허함을 이렇게 확신한다.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인류의 역사 안에는 일반은총의 바람직한 영향과 더불어 난해한 일들도 경험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특별은총을 위해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예비적 역할이 필요하다(Kuyper, 1907: II, 118; III, 435; Van Til, 1972: 120 재인용).

일반은총을 거부하는 무질서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상은 현대 예술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의 난해한 결과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윌럼 드 쿠닝(Willem de Kooning)과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에 의해 시도된 추상표현주의에서는 감성 혹은 상상력이라는 그들의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으나 개인적 사고와 신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드 쿠닝은 자신의 예술적 생명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의 작품 <여인 I>에서 능란한 붓 놀림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여인의 형태를 암시하는 여러 흔적들로 높은 수준의 정신적 해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예술기법이 표현하는 가능성의 한계와 회의를 느껴야만 했다(Lynton, 1980: 258-259). 폴록⁵⁾

5) 폴록의 작업은 신화(神話)와 관련이 있다. 신화에 대한 관심은 폴록의 친구이며 미술가이자 논쟁가인 존 그래험에게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험은 자신의 유명한 책 『미술의 체계와 방법론』(1937)에서, “의식적인 마음에 무의식의 강렬한 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 원초적인 과거와 접촉하고(적극적으로는 미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미술 작품을 사색함으로써)

은 화면에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을 연출했다. 화가 자신의 신념을 표상하는 물감의 발산과 거친 뒤영김은 폴록의 주된 관심인 신비주의와 현실을 초월하려는 불가사의한 매력을 표현하는 궤적이었다(Eschenburg, 2005: 632-633).

그런데 거의 제한 없이 발산되는 색채의 거대한 뿌림은 어디를 향하여 소용돌이치는 것인지,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의 개혁주의 미학자 칼빈 시어벨트(Calvin Seerveld)는 폴록에게서 발산되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근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Seerveld, 1977: 13). 아무리 자유롭고 우연적 예술적 의도를 존중하더라도,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조형적 흐름 속에서 안주해 버린다면 얼마든지 인간적인 좌절과 불확정적 신비주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예술 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와 사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친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예술 활동의 기초는 무엇보다 일반은총의 지속적인 작용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아름다운 예술 경험과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절제한 감성 위주로 흐르는 예술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예술 안에 갖추어야 할 뿌리나 내용을 놓치기 십상이며 결국 인간적 좌절과 허무한 신비주의로 흐르는 폐단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개혁주의 미학 안에서 일반은총의 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카이퍼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적 문화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전된다는 사실은 오직 일반은총 때문이다. 이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사이다. 결국 일반은총이 없다면 기독교인의 문화도 비기독교인의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이퍼의 의도는 일반은총의 개념이 학문과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기독교인을 고무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 사실을 카이퍼의 언급에서 확인하게 된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무의식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라.” 고 미술가들을 격려했다(Moszynska, 1990: 150-151).

문화적 성과를 제외하는 황폐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치 있는 전승이 아니다. 결국에 문화의 풍부한 역사적 산물을 담고 있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Kuyper, 1907: I, 462-66; Van Til, 1972: 121 재인용).

예수님의 말씀을 카이퍼가 설명한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태도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계 안에 남아 있는 선한 것들을 선망하고 그것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재로서 그 안에 계시듯이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새롭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죄에 얽매인 갖가지의 문화적 요소는 소멸되지만 그 정수와 본질과 의미는 새 땅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 즉 문화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카이퍼의 결론이다(Kuyper, 1907: I, 465, 483-89; Van Til, 1972: 121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일반은총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은총이 죄를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천부적인 지식과 윤리 감각은 일반은총이 희미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복구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Kuyper, 1907: I, 415-16; Van Til, 1972: 120 재인용). 이것은 일반은총보다도 훨씬 근본적이다. 말하자면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을 위한 근거이다. 특별은총은 구원의 중보자에게서 나온다.

결국 일반은총은 세상을 향한 편만한 은혜인 반면에 특별은총은 영원하고 초자연적 세계로 확장된다. 특별은총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앙과 죄악된 행위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버리게 한다(McGoldrick, 2000: 141). 그러므로 카이퍼에게 있어서 특별은총의 구속적 작업은 창조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타락한 세계를 창조의 목적에 맞는 세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IV. 예술의 세계관적 대립

카이퍼의 미학적 사고를 빛나게 하는 세 번째 주제는 ‘대립’이다. 이 세상에는 선과 평화라는 개념이 존재하듯이 죄와 악도 역시 실제적이다. 모든 세계의 역사는 이 둘 사이의 냉혹한 현상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상대적 가치의 체계 안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만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어떤 행복의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비극적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오늘날에도 그 비극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랑하고 사랑 받아야 할 인간의 모습을 추와 엮기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는 무려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해골로 인간의 기괴한 발상을 드러냈다. 크리스 오피리(Chris Ofilli)는 지극히 성스러운 마리아의 모습을 선정적인 포르노 잡지의 이미지와 코끼리 배설물을 사용하여 왜곡시켰다. 이와 같은 예술가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쉽게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들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라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성경적 근거로 맥골드릭(McGoldrick)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시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보금자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해주는 금령을 어기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 3:5)는 뱀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다. 뱀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잃게 만드는 독이 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드러나고 만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다. 이 말씀은 인류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류의 불순종에 대하여 신적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맥골드릭에 의하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인류를 분리시킨 대립의 실

재를 증명” 하는 것이다(McGoldrick, 2000: 141). 첫 죄인을 향한 판결의 선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분 앞에서 내 으셨으며 에덴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창 3:24). “하나님은 친히 인간 발전의 두 선상인 하와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사이에서 분노를 드러냄으로서 대립을 선언하셨” 던 것이다(McGoldrick, 2000: 142).

카이퍼의 미학적 사고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대립’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싫어하는 모더니스트들이 기승을 부리는 당시의 네덜란드 상황에 대해 카이퍼는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인상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맥골드릭에 따르면 카이퍼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우주적 차원의 갈등인, 지날 수 없는 간격을 상정하는 대립을 강조했다(McGoldrick, 2000: 142).”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는 카이퍼 자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종교 생활이 만연되어가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진리의 좌표로서의 성경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카이퍼는 “기독교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 끼친 유익한 영향을 거스려, ‘모더니즘’⁶⁾의 폭풍우가 사나운 기세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Kuyper, 1961: 18). 사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교회 내에서도 모더니즘은 확산 일로에 있었다.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다양한 믿음에 대한 네덜란드의 전통적 관용의 태도와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었다.

쇠퇴해가는 네덜란드의 종교, 정치, 미학적 상황을 카이퍼는 영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을 드러내는 ‘대립’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1873년 6월 7일자 슈텐다르

6) 카이퍼가 모더니즘을 신학의 반 기독교적 체계로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대혁명에 의해 대중화된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으로 본 것이다. 모더니즘의 원인이 된 폐해의 증거로서, 카이퍼는 독일의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1788-1860)와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의 영향과 기독교 윤리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와 허무주의의 부상을 언급한다(McGoldrick, 2000: 89). 그는 기독교 윤리를 죽이는 다윈의 적자생존의 개념과 대항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확신하며 무엇보다도 철학, 법률, 문학, 정치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에 요구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지(*De Standaard*)에 기고한 한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의지를 계시하시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계시를 발견한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대응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의 혜택을 누리려고 순응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계시의 부재에서 결정적 좌절을 맛보게 된다. ... 우리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믿지 않기에 불일치는 시작된다(Kuyper, 1980: viii).

카이퍼의 언급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는 시간과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문화적 환경으로 계시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속에서 편만하게 전제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과거에도 가르쳐졌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가르쳐진다. 그러나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카이퍼의 견해로는 모더니즘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슬러, 인간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자율성의 잣대로 세상의 삶을 위기와 상실의 상황으로 몰아왔다.

예술도 이러한 시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카이퍼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미학적 질서를 제외하는 인간 중심의 절대적인 감각 안에서 창안된 예술적 결과물들은 기독교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동 시대에 점점 광범위하게 증가 일로에 있는 예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즉 우리 시대가 장려하는 것처럼 거의 광적인 예술 숭배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태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려는 칼빈주의의 미학적 진지함과 거의 관계없다(Kuyper, 1961: 172).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의해 형성된 위대한 예술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이다. 카이퍼는 서양예술의 역사를 종교와 예술이 밀접한 관계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감을 받은 예술은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실존의 중요한 변화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예술의 세계관적 대립에 대한 예로 그리스 예술을 제시한다. 고대 그리스의 모습은 예술에 의해 확립된 생동감 있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이 세계는 여전

히 높은 문명과 예술적 광채로 호감을 주어왔다. 역사적으로 이 세계가 고대 미학의 산실이며 문화 예술의 요람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카이퍼는 그것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추한 이념적 성향을 반대한다(Kuyper, 1961: 191-192).

바울이 그리스 선교 당시, 아덴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예술적 ‘대립’에 관한 선명한 표명이었다(행 17:16-22). 아덴에는 많은 예술품과 문명의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의 제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곳은 웅장한 신전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는 도시였으며 우상들의 집산지였다. 이에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그리스 세계에 대하여 예술적 ‘대립’을 선언한다. 바울이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으며(16절)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우상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던 것이다(23절). 그래서 바울은 에비구레오와 스토이코 철학자들과도 쟁론할 수 있었으며 예술적으로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에게 ‘대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

카이퍼 자신도 ‘대립’이 숨 쉬는 모더니즘의 현장에 몸을 의지하고 있다. “어떻게 교회는 떠오르는 국가 권력과 계몽주의의 합리론자의 비판에 직면하여 자율성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카이퍼에게 깊이 각인된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배적인 문제였다(Kuyper, 1998: 45).⁷⁾

카이퍼에게 있어 모더니즘의 배후에 있는 정신은 “인간 해방을 모든 신적 권위로부터의 해방으로 선전했던” 프랑스혁명과 자기 충족적인 자연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Kuyper, 1961: 19). 또한 합리적 이성과 병립하여 “19세기 사고의 추이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렬한 시도”로 평가된다(Kuyper, 1998: 45). 인간 존엄의 보편적 감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를 필두로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영향력 있는 자유주의 신학도 창궐하기 시작했다. 바우어(Ferdinand Christian Baur,

7) 카이퍼는 영국의 존 헨리 뉴먼 주위에 있는 서클과 독일 전역에 걸친 루터파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 내의 루터교회 개혁교회 감독교회 안에서 동일한 시대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Kuyper, 1961: 45.

1792-1860)는 신약성경 연구에 헤겔의 변증법을 적용시켰으며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 1808-1874)는 예수님의 삶에 관한 자료에 합리적인 비판을 가했다. 또한 성경의 영감, 통일성, 성경 기자들에 대한 정통적인 가르침을 반대한 벨하우젠(J. Wellhausen, 1770-1830)등도 기독교의 절대성을 무너뜨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발흥과 이념의 발달은 점차적으로 영적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수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카이퍼는 이런 형태의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종교적 영감의 원천과 단절된 양식이란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예술양식을 산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18 세기의 합리주의나 1789년의 원리” 에서 전도된 예술이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Kuyper, 1961: 184).

그렇다면 그가 계획하는 ‘대립’ 의 영향 아래 있는 모더니즘 예술이 나아가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거룩한 열정과 영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술이 견고케 되며 보다 풍부하게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Kuyper, 1998: 456-60). 카이퍼의 판단으로는 인간의 의지만을 반영하는 모더니즘의 광범위한 세계관에 대하여 반증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은 오직 개혁주의 믿음(Reformed faith)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 그리고 말씀에서 유래되었으므로 창조하신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그 근원과 존재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계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건 없이 고백해야 한다. 개혁신교회는 인간의 본성이 초자연적인 은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질서 안에 있으므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의 옷을 입었음을 고백해 왔다(Kuyper, 1998: 444).

카이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응답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창조된 존재의 역할임을 밝힌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삶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는 믿음을 소유했다(McGoldrick, 2000: 89). 18세기의 계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즘은 “자연인의 자료로 자신의 세계를 세우고 자연의 자료로 인간

자신을 세우” 려고 할 뿐이다. 결국 성경적 통합체계를 거부하며 종교적 영감의 원천과 단절된 양식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을 위한 충동과 열정” 에 지나지 않는다 (Kuyper, 1961: 19).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적대적 경향들을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체계 안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전이 시킬 수 있는 길은 창조된 질서 안에서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술적 과업이 수행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앞으로 긴급히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규정되어진다. 그만큼 당시 네덜란드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모더니즘의 실체는 비중 있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카이퍼는 자신이 수상으로 재직하던 1904년 3월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모더니즘을 초래한 ‘대립’ 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대 세계관은 역사적 삶 속에서 형성된 학문에 대한 재판관이라는 확실한 지위를 갖는다. 이것은 우리를 다양한 정도로 강하게 확신되는 일반적 의문을 품게한다. ...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인위적인 세계관과는 특징적으로 정반대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이 지속적으로 학문의 모든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한다(Kuyper, 1980: viii).

카이퍼의 견해에 의하면 창조의 산물인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학문과 세계관에 대립이 발생한다.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간들은 불가피하게 순종이건 불순종이건 신적인 계시에 응답해야 한다. 그래서 백비에 따르면 카이퍼는 세상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Begbie, 1991: 94). 중간의 길도 중립의 인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죄는 주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고 회심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준비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더니즘이 기대하는 잘못된 결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를 제쳐놓고 인간을 위한 지식 체계를 양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계시를 넘어서는 모더니즘으로 변질되어 가는 이러한 경향에 거센 반응을 보인 선구자였다. 백비는 카이퍼가 네덜란드를 향해 품었던 타오르는 희

망이란 “교회가 명백하게 기독교의 지평 안에서 시대의 논점들에 대답하는 것이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견해 사이에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잃지 않는 것” 이었다고 설명한다(Begbie, 1991: 95). 결국 카이퍼는 이 두 그룹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모더니즘이 문화·예술에 끼친 영적인 해악을 지적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예술의 행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V. 세계관 안에서의 예술

이제, 카이퍼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립적 성격의 두 그룹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간극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카이퍼는 대립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악 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예술에서 찾았다. 예술은 “이 생활 뒤에 부요롭고 영광스러운 배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은사, 현세의 위로” 이기 때문이다(Kuyper, 1961: 189). 그는 창조의 폐허 앞에서 원창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하실 찬란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다.

예술은 칼빈주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한다. 일찍이 놀랄 만큼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계가 폐허로 변한 현실 앞에서 예술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본다. 즉 최고의 예술가이며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언젠가 본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하고 높이실 휘황찬란한 회복을 향하게 한다(Kuyper, 1961: 156).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대립의 실재가 제공하는 최악 된 예술을 회복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이퍼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예술적으로 재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적 형식에서 아름다움 것의 질서를 발견하고 이 높은 지식에 의

하여 부요롭게 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세계를 만” 들 것을 제안한다(Kuyper, 1961: 188).

이것은 죄의 슬픈 결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달아나 버린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행위이다. 카이퍼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환상의 산물도, 우리의 주관적 인식의 산물도 아닌, 그 자체가 신적인 완전성의 표현으로서 객관적 실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적 완전성은 하나님의 영광, 광휘 그리고 신성으로 설명된다(Kuyper, 1907: Ⅲ, 538; Begbie, 1991: 97 재인용).” 그러므로 예술은 인간에게 생활상의 단순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다.

세계가 ...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으로 나아간다면, 예술은 장차 올 세상의 한걸음 나아간 국면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러나 세상이 한때 아름다웠지만 저주로 못쓰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 낙원의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는 완전한 영광으로 이른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예술은 잃었던 아름다움의 산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그 미래의 완전한 광채를 기대하게 하는 신비한 과제를 갖게 된다(Kuyper, 1961: 188).

만일 죄가 세상 속에서 강력한 실제 세력이며 그 영향력의 실현을 인식한다면, 예술은 자연의 단순한 모방을 초월하여 절대적 선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향한 매력 있는 여정을 제시해야 한다. 카이퍼에 의하면 사실 영광은 아름다움의 가장 상위의 형태이다. 그러나 영광의 충만함이 이러한 세상 안의 우리에게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선적으로 조화로운 특성(균형, 리듬, 대칭, 비율 등)이라는 거울로 비춰 볼 수 있을 뿐이다(Kuyper, 1959: 14-15).

이렇듯 카이퍼는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연합이 가능한 완벽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세계를 믿는다. 이 세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은 피상적이며 감각적인 세계를 꿰뚫어보고 그 너머의 세계를 투영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심오한 상승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의 매력은 하나님이 최고 예술가로서 이 세계를 창조 하셨을 때 아름다운 것으로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이퍼에 의하면 세계관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시대의 변혁을 이룩한 예술은 칼빈주의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는 예술의 역사로, 종교와 예술의 결합이 보여

주는 저급한 단계로부터 새로운 통일성을 부여하고 등장한 칼빈주의를 들고 있다.⁸⁾ 칼빈주의는 “상징적인 생활에서 분명히 의식적인(clearly-conscious) 생활로 발전”을 의미한다(Kuyper, 1961: 178).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듯 16세기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좀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카이퍼는 예술에 있어 영적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준 역할을 칼빈주의에 돌리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카이퍼의 확신에 기초한다.

칼빈주의가 나타났던 모든 나라에는 이것이 다양한 형식의 삶의 경향에 이르렀고, 종교의 영역에서 국가의 권력을 제외시켰으며 상당한 정도의 사제주의에 중언을 고하게 했다. 이 결과 칼빈주의는 상징적 예배 형식을 버리고 예술의 요구에 따라 화려한 기념물로서 표현되는 종교적 정신에 머물기를 거부했다(Kuyper, 1961: 178-179).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활체계와 문화의 영역까지도 인간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칼빈주의가 관심을 갖는 영역 중, 종교와 예술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독자적인 실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술이 절대자와의 관련성에서 자신의 내면적 통일성을 이룩했을 경우, 종교는 예술에 풍족한 동기를 부여하는 보고(寶庫)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와 예술은 최고의 발전 단계에 도달했을 때 독자적인 실존을 요구” 한다. 칼빈주의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마치 “아론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부터 사도들로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Kuyper, 1961: 179-180). 그 결과 “칼빈주의의 고상한 노력은 종교와 신적 경배를 감각적 형식에서 점점 해방시키고 그 활기찬 영성을 고무”시킬 수 있었다(Kuyper, 1961: 181).

앞서 말한 대로 카이퍼는 상징주의적 예배 형식 안에 예술을 위치시키는 전통에서 탈

8) 파르테논과 판테온과 성 소피아와 성 베드로 성당이 돌로 장식되어 증거 하는 저 이상적 절정에 도달한 신적 경배의 미학적 발전은 동일한 예술 형식이 군주와 제사장에 의하여 온 나라에 강요되는 저급한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 영적 표현의 모든 차이는 하나의 상징적 경배 양태로 혼합된다. (Kuyper, 1961: 178) 헤겔 역시 종교가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술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발전의 단계에서 보다 낮고 감각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한다(Heslam, 1998: 203).

피하여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상징적 예배가 이스라엘에 자리 잡지 않았느냐는 반론에 대해서 그는 단호한 입장으로 반응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기념비적인 성전에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때를 예언” 하셨다고 강조한다(Kuyper, 1961: 179). 덧붙여, 카이퍼는 종교와 예술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칼빈주의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종교와 신성한 예배를 감각적 형태로부터 더욱 해방시켰으며 강력한 영성을 고무시켰음에 틀림없다.

다른 한 편으로 칼빈주의는 종교의 특정한 상징적 표현만을 집중하여 발전시킬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한 특징을 거부하게 되었다. “칼빈주의가 (하나님에 관한 언급 없이) 그 자신의 순수한 세속적 양식을 발전시켜야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카이퍼는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 않은 삶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Kuyper, 1932: 224; Begbie, 1991: 96 재인용). 결국 칼빈주의는 예배의 상징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예술관을 형성하기보다는 인생의 여러 경향들을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보여주는 전 포괄적인 예술관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카이퍼는 역사적으로도 이 예술관이 원리와 실천에 있어서 예술의 진보를 고귀하게 권장해 왔음을 설명한다. 먼저 그는 칼빈주의 예술의 장점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교적 성향의 아름다움의 미학을 예술의 터전으로 재현했던 르네상스를 고찰한다. 그의 판단으로는 당시 교회는 르네상스 예술의 이교적인 성향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독교적인 이상이지향하는 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예술이 아니라 종교를 자유롭게 했고, 예술의 자유라는 명에는 전적으로 르네상스의 몫이라고 확인하는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검증한다. 그도 역시 르네상스가 “그리스의 천재들이 발견한 예술의 근본 법칙에 다시 동의함으로써 예술은 독립적 실존을 내세울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카이퍼의 판단으로는 이 자체가 예술의 바람직한 자유를 성취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고전 예술 자체를 결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교회는 르네상스 예술을 환영했고 기독교 예술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르네상스 예술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

신을 풍요롭게 했다는 것이다(Kuyper, 1961: 193-194). 카이퍼는 16세기 당시 교회와 예술 전반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위 친케젠토(cinquecento), 즉 전성기 르네상스의 브라만테,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는 매우 독특하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술의 진수를 로마 가톨릭의 대성당에 진열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예술과의 연합이 가능해졌으며, 지속적으로 후견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의 진정한 해방은 좀 더 자유로운 강한 힘이 필요했다. 이제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범주인 영적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Kuyper, 1961: 194).

16세기의 예술가들은 실제적인 기반으로 형성된 자연주의적인 미론의 한계와 그 아래 숨겨져 있는 심연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순수 절대적 세계인 이데아를 목표로 하는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통해 창작하려고 했다. 예술은 이제 자연의 충실한 모방 이외의 어떤 것이라는 비자연주의적 태도가 일반화되었다. 이 형이상학적 미론이 절대자인 신에게로 향하는 신비로운 이상과 결합되었는데,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결합에서 나온 예술적 결과물들을 수용했던 것이다(Panofsky, 1960: 202-210).

그러나 교회는 당시의 건축과 회화의 중요한 수호자를 자처했으나 대중을 향한 예술 고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예술은 “지금껏 거룩한 영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Kuyper, 1961: 194).” 교회 역시 상징적인 형상에 치우친 외적인 광채를 벗어던지고 순수하고 영적인 종교를 갈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카이퍼에 의하면 인간 삶과 예술에서 우러나오는 심오한 통찰과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칼빈주의이다. “칼빈주의는 인간 자유를 위한 여정에서 자신의 원리에 힘입어 지금까지 예술을 포로로 잡아 두었던 끈을 끊을 수 있었다(Kuyper, 1961: 195).”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방법과 계시로 인간에게 부여한 완전한 역사적 삶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교회를 향한 칼빈주의의 이러한 역할은 성경적 원리의 토착화를 위한 예술 변혁의 원리를 실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예술의 높은 향유를 중생에 국한시킨다면, 이 선물은 오직 신자의 몫이며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럴 경우 예술은 “특별은총의 산물”에 머무를 뿐이다

(Kuyper, 1961: 195-196).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은사를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한다.

자연스런 은사인 예술적 본능이 일반은총에 따라 인간 본성 안에서 계속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술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기독교 국가뿐 아니라 이교를 받아들인 국가에게도 그것들을 베푸신다는 결론이 분명하게 나온다 (Kuyper, 1961: 196).

카이퍼는 이러한 예술의 재능을 칼빈주의가 더욱 장려하고 기독교문화 형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술에 관한 칼빈주의의 공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업 틀을 규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식적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는 예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이 문화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특성을 객관화시켜왔던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카이퍼는 예술의 주관적 모티브에서 비롯되는 서로 다른 인간 활동의 형식들이야말로 역사를 통해 가톨릭교회가 측정하지 못한 인간 삶의 심오한 깊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만일 예술가가 “선지자와 사도의, 성인과 사제의 이상화된 형상을 캔버스 위에서 추적만” 한다면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온갖 진실한 실재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일상 사건에서 자신의 예술적 동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인간 마음의 정서와 사안에 관심을 기울” 이며 나아가 “널리 세상을 위하여 자신이 발견한 소중한 것을 해석” 할 것을 제안한다(Kuyper, 1961: 202).

이로 말미암아 카이퍼는 네덜란드 미술을 열방을 향해 고귀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술적 메시지로 진단하기에 이른다. 우선 그는 역사적으로 칼빈이 유명한 교회 음악가 팔레스티나의 스승인 구디멜(Goudimel)이나 브르조아와 같은 음악가와 동역했던 사실과 네덜란드 개혁신교회가 렘브란트나 베르메르와 같은 훌륭한 화가들을 배출했던 사실을 예로 든다(Kuyper, 1961: 203, 206). 이때부터 예술가는 인간 주체 안에서 뿜어 나오는 풍부한 개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과 지위를 넘어서는 인간적 표현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카이퍼가 칼빈주의의 한 사례로 네덜란드 미술을 든 것같이 네덜란드 미술은 이탈리아 미술 못지않게 미술의 역사에서 성공적인 모범이 되어 주었다. 그로 인하여 일반인을 위한 미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Falkenburg, 1999: 343). 미술에 있어서 실질적인 중세의 단절은 르네상스가 아니라 네덜란드 미술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믿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기독교가, 그리고 예술이 네덜란드 미술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졌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정신은 다름 아니라 칼빈주의였기 때문이다.

VI. 닫는 말

오늘날에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다양한 경향의 조형언어와 현학적 필치로 참담한 문화 예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듯 보이나 실상은 예술이 타락해 가는 것과 그 이면의 허무한 문화 예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간의 삶 전체와 예술 창작에 근본 원리를 제공하는 세계관의 혼돈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다. 개인의 예술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만이 존중된다면 이 세상은 인간중심주의적 휴머니즘을 담아내는 예술작품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술 수용자인 관람객은 예술이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결여한 모호한 정보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시대의 변혁을 이룩할 예술이 긴급히 요청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필자가 카이퍼에게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기독교세계관을 근거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름다움의 세계와 현대 예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지기적 미학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그가 미학 원리 안에 위치한 기독교세계관을 개혁주의 미학의 원리를 구성하는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제안하는 개혁주의 미학은 현대 예술에서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논의에 집중했다. 우선 예술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의 문제이다. 카이퍼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예술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종교의 영역이며 영원자와의 연관에 의하여 예술은 통일성과 신성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느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영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일반은총의 원리가 미학원리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이다. 피조된 세계의 모든 형태 속에 침투해 있는 죄의 힘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사와 문화 예술을 가능케 하는 독자적 역할이 일반은총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은총을 거부하는 예술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공허함과 난해함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윌렘 드 쿠닝과 잭슨 폴록의 경우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낙관적인 예술 이해가 영혼의 좌절과 허무한 신비주의로 귀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예술의 세계관적 대립이라는 현실에서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이 어떻게 가능할지의 논의이다. 플라톤의 아름다움의 미론을 자랑했던 그리스 예술처럼 오늘날의 데미안 허스트와 크리스 오펔리의 추와 엽기적 작품들은 ‘대립’의 실체가 강력한 힘과 유명세를 띤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유해야 할 이러한 ‘대립’의 간극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거룩한 영감을 통해 예술이 견고케 되며 미학적 욕망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적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넷째, 예술의 청지기 역할은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의 논의이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독자적인 실존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활발한 영성을 고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일어난 움직임이 성경적 원리의 토착화를 위한 예술 변혁의 실천이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예술의 청지기 역할을 자임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상징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예술관에 머물기보다는 인간 삶의 심오한 깊이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함으로써, 열방이 고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미학적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개혁주의 미학의 청지기 역할에 관한 논의가 20세기 초 칼빈주의 전통

을 새롭게 확립한 카이퍼에 의해 논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종합해 보건데 카이퍼의 개혁주의 미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관’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카이퍼에 의하면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대의 변혁을 이룩하였다. 또한 그는 피조세계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가능케 하는 독자적 역할이 일반은총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사실 어떠한 문화 예술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뿐만 아니라 전 문화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그의 가장 위대한 공적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개혁주의 미학을 역동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에 적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이론을 정립했다는 데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통합된 기독교세계관으로 예술을 고찰할 경우 기독교인의 예술과 삶에 유익이 발생한다. 예술의 역사에서 통합된 기독교세계관을 지적하는 경우, 기독교 예술을 지지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신학적 좌표를 창조세계 안에 고유한 위치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에는 비기독교적 정신, 세계관, 생활양식에 대항하여 기독교 예술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세계관의 정립은 타당성 있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egbie, Jeremy (1991). *Vocing Creation's Praise*. Edinburgh: T&T Clark.
- Eschenburg, Barbara (2005). *Masterpieces of Western Art II*. Köln: Taschen.
- Falkenburg, Reindert L (1999). "Calvinism and the Emergence of Dutch Seventeenth-Century Landscape Art-A Critical Evaluation". *Seeing beyond the Word: Visual Arts and the Calvinist Tradition*. 343-368. Grand Rapids: Eerdmans.
- Gilbert, Katharine Everett · Kuhn, Helmet (1972). *A History of Esthetics*. New York: Dover.
- Hart, Trevor (2000). "Through the arts: Hearing. Seeing and Touching the

- Truth*". Beholding the Glory. 1-26. Grand Rapids: Baker Books.
- Heslam, Peter S. (1998).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Kuyper, Abraham (1932). *Calvinism*. London: Sovereign Grace Union.
- Kuyper, Abraham (1980). *Christianity as a Life System: The Witness of a World-View*. foreworded by Mckendree R. Langley. Memphis: Christian Studies Center.
- Kuyper, Abraham (1998). "Confidentially." in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45-61. Grand Rapids: Eerdmans.
- Kuyper, Abraham (1998). "Common Grace in Science." in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441-460. Grand Rapids: Eerdmans.
- Kuyper, Abraham (1907). *De Gemeene Gratie I II III*. Kampen: J. H. Kok.
- Kuyper, Abraham (1959). *Het Calvinisme*. Kampen: J. H. Kok.
- Kuyper, Abraham (1961).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역 (2002).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Kuyper, Abraham (1998). "Sphere Sovereignty." 461-490. in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 Lynton, Norbert (1980). *The Story of Modern Art*. 윤난지 역 (2000).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 McGoldrick, James Edward (2000). *God's Renaissance Man*.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 Moszynska, Anna (1990). *Abstract art*. 전혜숙 역 (2002)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 Naugle, David K. (2002).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Grand Rapids: Eerdmans.
- Panofsky, Erwin (1960). *Renaissance and Resuscitations in Western Art*. Stockholm: Almqvist & Wiksell.
- Seerveld, Calvin (1977). *A Christian Critique of Art and Literature*. Hamilton: Guardian Press.
- Van Til, Henry R. (1972) *The Calvinist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Abstract

The Stewardship of Modern Reformed Aesthetics

—With focusing on Abraham Kuyper's Aesthetic Theory—

Yong-Joon Ahn(University of Toronto)

My Dissertation has two aims. First,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braham Kuyper's reformed aesthetics are studied, Secondly, the stewardship of Kuyper's aesthetic theory in order to overcome a crisis of contemporary arts are studied.

Reformed Aesthetics is the aesthetics which has been developed by Neo-Calvinistic scholars. They have followed the theology of reformer, John Calvin. The presupposition of Reformed Aesthetics is Christian (Reformed) worldview. The worldview consists of key concepts, namely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So Kuyper regards the created world as beauty. According to kuyper, the true beauty is in this created world which shows the existence of God's perfection. Also he put great emphasis on the thought that there is no one inch of the area of our human existence which does not belong to Christ who has sovereignty over all things in the world. So one can see the most beautiful glory of God in this worl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In this regards, Kuyper suggests that a crisis of contemporary arts in this world can be reformed via Reformed Aesthetics. I think Kuyper's aesthetics gives three factors to questions about the matter. First, according to reformed aesthetics, the most abundant source of arts is the realm of Christian religion. This wealth of artistic inspiration was also associated with the eternal God. Secondly, common grace should be the foundation of aesthetics, since God's great plan for creation is achieved through common grace. With these

two factors, thirdly, there is now possibility that the stewardship of modern reformed aesthetics will make a full reality.

Key words: Reformed Aesthetics, Common grace, Christian worldview, steward, God's sovereignty